

# 1. Why God?

2023.1.15

## ● 왜 사람들은 신을 이야기하는가?

인류가 이 땅에 존재한 이래로 인간은 신에 대해서 이야기해 오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끊임없이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또 어떤 사람들은 왜 끊임없이 신에 대한 이야기를 거부하는 것일까?

오늘날 사람들의 생각과 경험과 마음 가운데는 이런 것들이 자리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1:1)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로마서1:20)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전도서3:11)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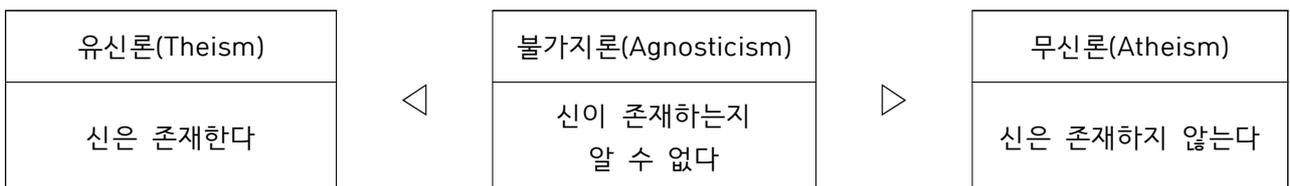
## ● 당신은 신의 존재를 믿는가?

신의 존재를 믿는가 안 믿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매우 달라집니다.

절대적인 존재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의 내면세계의 성향을 가장 많이 좌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의 존재를 믿고 있습니까?

다음 세 가지 중에서 당신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잠언1:7)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요한복음1:12)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새가족 성경공부

● 왜 사람은 만족이 없는가?

다다익선(多多益善)라는 말이 있죠. 많을수록 좋다(The more, the better)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 안에는 사람의 만족할 수 없는 욕구와 욕망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 사람의 마음은 만족할 수가 없는 것일까?



(빌4:11~13) “11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 신은 유일한가?

정말 신이 존재한다면 신은 유일한가?

오늘날은 문화다원주의 시대일 뿐 아니라 종교다원주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유독 기독교만 유일신을 고집하기 때문에 타종교들은 전부 손에 손을 잡는데 기독교만 안 하죠.

그렇다면 어느 쪽이 맞는 것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생부(生父)는 하나일 수밖에 없는데 다른 신, 다른 아버지를 부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교(Buddhism)	힌두교(Hinduism)	이슬람교(Islam)	기독교(Christianity)
무신론 (불교철학)	범신론	비인격적 유일신론	인격적 유일신론

(요한복음17:3)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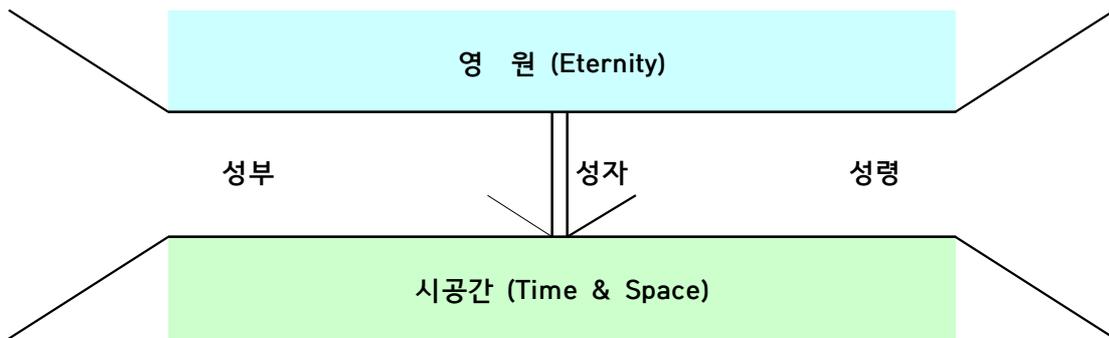
(요한일서1:3)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귀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귀어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 신데렐라 스토리(Cinderella Story)

인간의 이성으로도 신의 존재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과학으로도 신의 존재를 다 증명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심성으로도 신의 존재를 다 감지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먼저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시는 것이죠. 이것이 차원의 법칙입니다.  
 저차원은 고차원으로 접근(access)이 안 되지만 고차원은 언제든지 저차원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영원의 세계에 계신 그분이 시공간의 세계 속으로 먼저 다가오시면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도 있고 경험할 수도 있고 함께 대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그분의 나라(천국)로 데려가신다니 이것이야말로 신데렐라 스토리인 것이죠!

(창세기1:1~3) "1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3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요한복음1: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로마서5:8)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눈높이의 원칙도 마찬가지입니다.  
 키가 작은 사람이 큰 사람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키가 큰 사람이 작은 사람에게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와는 다른 고차원에 계신 그분이 우리의 차원으로 다가오신 것입니다.  
 유치원생이 노벨 물리학자의 학문세계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Nonsense!"라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내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듯이 하나님이 내 영혼의 아버지시라면 그분을 찾아야죠. 그분을 만나야죠.  
 자식이 집 나가면서 "내 부모는 없어!"라고 외친다고 정말 부모가 없는 것은 아니지요.  
 인생의 세월을 오랫동안 독립해서 살아왔을지라도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와 그분의 집에서 영원히 살자고 하십니다.  
 내가 그분의 자녀인데 거절할 이유가 없어요. 얼마나 행복한 결정인지 모릅니다.

(창세기1:27)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누가복음15:24)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